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대상을 뽑아주세요!

- 1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41회 수상작 선정 국민투표 시행
- 전문가와 대국민 참여로 작품성, 대중성 겸비한 수상작을 공정하게 선정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3월 1일(금)부터 10일(일)까지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사진 부문 3,462점, 영상 부문 221점 등 총 3,68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1, 2차 평가를 거쳐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입상후보작이 결정됐으며, 이 중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를 합산해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투표는 공모전 누리집(www.weather-photo.kr)에서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 7개 작품을 살펴본 후 가장 좋은 작품 1점에 투표하는 1인 1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40여 년간 대회 전문적 예술성뿐만 아니라 대중적 선호도까지 겸비한 뛰어난 수상작이 선정돼 화제가 되었던 만큼, 국민투표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큼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제41회 기상기후 공모전 사진 부문 입상 후보작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김희철 (02-2181-0352)
		담당자	주무관	장정아 (02-2181-0360)

<p>1</p>		<p>1. 가을 속 설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관방제림) / 2023.11.18. 늦가을, 단풍이 물든 관방제림에 첫눈이 내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p>
<p>2</p>		<p>2. 보발재의 겨울 *충청북도 단양군 (보발재 전망대) / 2024.01.10. 아름다운 단양 보발재의 겨울 풍광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p>
<p>3</p>		<p>3. 얼음 속 한라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라산 백록담) / 2024.01.01. 겨울 동안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한라산 백록담의 풍경입니다.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한라산의 겨울 폭설을 담았습니다.</p>
<p>4</p>		<p>4. 제설작업 *강원도 삼척시 (갈남향 부근) / 2023.02.21. 밤새 내린 폭설로 제설작업 차량 2대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제설 중인 모습을 담았습니다.</p>
<p>5</p>		<p>5. 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 2023.07.15. 2023년 7월, 폭우로 한강이 불어나 반포 한강공원이 침수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p>

<p>6</p>		<p>6. 폭설로 인해 마비된 도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부근) / 2021.01.16. 2021년 1월,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쳐 교통량이 증가한 때라서 제설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법원 쪽 언덕에 올라, 교통이 마비되어 주차장으로 변한 교대역 사거리를 프레임에 담아냈습니다.</p>
<p>7</p>		<p>7. 푸른빛 물결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해변) / 2023.05.22. 2023년은 온난화로 인한 적조 현상이 화제였습니다. 그동안 흔히 볼 수 없던 야광충의 모습을 유난히도 쉽게 볼 수 있었고,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보기에는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그 뒤에 감춰진 기후의 변화는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p>